

건축사 업무쇄신 다짐대회 개최

본 협회(회장 오운동)는 지난 6월 5일(금) 본 협회 대강당에서 7백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건축공토의 쇄신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일부 건축사 업무에서 일어나는 부조리 척결의 일환으로 건축사업부 쇄신 다짐대회를 개최하였다.

서울 지역을 필두로 전국 시·도 건축사회 단위로 개최되는 이번 다짐대회에서 오운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부단

한 개혁의지로 건전하고 성숙된 민주사회의 건축공토 조성에 앞장서자」고 하였다. 이어, 이경남 이사의 선창으로, 「건축물의 설계·감리에 있어 따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절의 건축관련 비리의 근절에 앞장서자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한편, 다짐대회에 이어 서울 건축사회 회원들의 '92년도 보수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이는 7월 7일까지 전국 시·도 건축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역단위로 실시될 예정이다.



다짐대회 전경



결의문 채택광경

決意文

우리는 建築物의 設計, 監理에 關하여 國家로부터 資格을 賦與받은 專門 技術人으로서 建築士業務를 遂行하는 過程에서 일어나는 一切의 建築關聯 非理의 根絶에 앞장서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決意한다.

- 우리는 建築物의 設計, 許可, 監理 및 檢査等の 過程에서 迅速處理를 위한 儀禮的인 金品授受行爲와 違法·不當한 事項에 대한 무마, 그리고 묵인조의 金品授受行爲等을 一切하지 아니한다.
- 우리는 設計 및 監理 受注를 爲한 過當 競爭을 止揚하고 設計圖書의 充實한 作成과 檢討는 물론 現場監理를 보다 徹底히 함으로써 不實設計 및 監理 素地를 根本적으로 除去한다.
- 우리는 建築士 調査·檢査 代行業務를 許可權者를 代身하여 誠實히 遂行함으로써 “建築民願行政 刷新運動”에 積極 앞장선다.
- 우리는 免許貸與 및 二重就業等 建築關聯法令과 建築士 倫理規程을 違反하여 建築士의 品位를 損傷하는 一切의 行爲를 하지 아니하며, 自體 倫理委員會를 強化하여 自律적으로 淨化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우리는 30分 일더하기와 無事安逸·非能率·不親切等 3大 追放運動, 그리고 家庭과 職場에서 에너지와 物資節約의 生活化를 통하여 「새秩序·새生活 實踐運動」에 積極 同參한다.
- 우리는 創意性을 最大한 發揮하여 國民便益을 圖謀하고 建築技術開發에 最善을 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建築文化 暢達을 積極 主導해 나간다.

1992. 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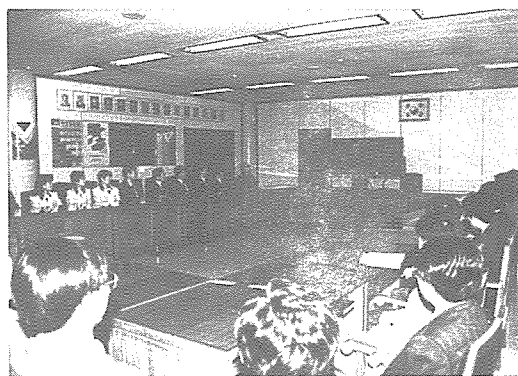
大韓建築士協會 會員 一同

특별 직장교육 실시

본 협회에서는 지난 달 25일 본 협회 회의실에서 우리 경제의 실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특별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본부 및 서울건축사회, 서울 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을 주제 한 박경환 상근 부회장은 '실제로

보는 우리 경제의 지표'와 '민주화 추진을 위한 우리의 자세'란 주제를 가지고, 미국 MIT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미국이 쇠퇴하는 원인과 일본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 등, 선진국의 경우를 세부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실상을 올바르게 알려주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특별 직장교육 광경

전경부대 위문 실시

본 협회에서는 지난 5월 18일 (월) 해의건설협회·대한설비공사와 함께 군무에 충실하고 있는 201전투경찰부대를 방문하여 사

과 7상자와 라면 50상자 등의 위문품을 전달하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 하였다.

농촌 일손돕기 성금 기탁

본 협회에서는 지난 달 25일 농촌의 이농현상 및 농촌 인력의 노령화로 인력이 부족하여 휴경 농지가 늘어나고 작기영농을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농촌에 모내기 등 본격적인 영농

철을 맞아 일손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한 일손돕기과 농기계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농촌 일손돕기 성금 일백만원을 농림수산부 일손지원센터에 기탁하였다.

서울건축사신문 창간

서울건축사회(회장 이문우)에서는 6월 16일 자로 "서울건축사신문"이 창간 되었다.

이 신문은 격주간으로 건축관련뉴스의 심층분석, 건축정보의 신속한 보도, 건축학 연구논문 게재, 회원동정 및 독자투고관

활성화, 그리고 우수건축물 및 새 건축자재를 소개하는 등 올바른 건축문화 창달에 일조함은 물론, 회원들의 손과 발이 되어 신속한 정보 전달과 성실한 대관청 민원창구의 구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로 소연 개최

서울건축사회(회장 이문우)는 지난 5월 18일(월)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웃어른을 공경하는 뜻으로 역대 서울건축사회 회장 및 원로회원(추대

회원)을 모시고 경로효친 사상을 고취시키고자 경기도 장흥소재 세종레저타운에서 소연을 베풀고 선물을 증정하였다.



경로소연 광경

간담회 실시

광주건축사회(회장 서정민)에서는 지난 달 20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회의실에서 건축행정 건실화 및 발전을 위한 건축관계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광주직할시의 손병선 건설주택국장 등 11명과 건축사회의 서정민 회장을 비롯한 25명 등

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본협회 업무 현황과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계획 및 건축법개정 방향에 대한 보고와 회원의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토의 답변하는 등 좀더 발전적인 건축행정 및 건축계 전반에 관한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제 1회 韓國建築文化 大賞 作品公募

서울경제신문사화 건설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사업협회·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 등 유관 4개단체가 후원하는 제 1회 「한국건축문화 대상」의 작품응모가 10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건축문화 대상」은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창달과 쾌적한 생활공간조성을 목표로 제정된 건축문화분야에 관한 국내 유일의 시상제도로써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인간이 중시된 건축물」을 빛어낸 설계자·시공자·건축주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건축을 문화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주인공들을 격려코자 합니다.

「한국건축문화 대상」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전국민의 시상제도로 자리잡기 위해 작품 제출서류를 크게 간소화하는 대신 국제 최초로 현장심사제도를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찬란한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를 이어 받아 민족이 살아 숨쉴 수 있는 건축공간을 창조해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시대의 역사적 책무이자 사명이기도 합니다. 또 경제성장에 발맞춰 건축이 문화의 차원으로 올라서 세계 삶의 공간을 풍요롭게 가꾸어 줄 때 우리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요강◇

- 賞의 종류
 - 大賞 1점(전건축물 대상)
 - 本賞 4점(주거용·非주거용 각 2점)
 - 공로상(건축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 입선작 다수
 - 시상시기 : 10월초(연 1회)
 - 시상대상 : 시행연도 및 전년도에 준공 또는 준공예정인 건축물
 - 응모기간 : 6월 10일~8월 30일
 - 응모자격 : 설계자, 시공자 또는 건축주
 - 제출서류
 - 작품설명서와 기본설계도면이 포함된 B4 규격(25.6 × 36 cm)의 작품사진첩(8 × 10인치 사진 10장내외) 2부
 - 작품의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간이소개서 2부
 - 패널은 입선작에 한해 추후 제출 통보(제작비 일부 지원예정)

- 접수 및 문의처
 - 우편번호 110 - 792
 - 서울 종로구 중학동 19 서울경제신문사 편집국사회부 (☎ 724 - 2457 ~ 8)
 - 본협회 출판사업부 (☎ 581 - 5711 ~ 4)
 - 제출방법 : 접수처에 직접 또는 우송 제출
 - 심사 : 관계전문가 및 사회각분야 저명인사들로 심사위원회 구성, 1차 서류심사후 현장방문 심사
 - 시상내용
 - 본상이상 설계자·시공자 및 공로상수상자 - 상패수여 및 해외시찰(중국 예정)
 - 건축주 - 상패 및 동판(건축물부착용)수여
 - 입선작 설계자·시공자-상패
 - 시상자 : 건설부장관·서울경제신문사장 및 후원 4개 단체장
 - 특전 : 전용모작 보도홍보 및 상설전시

주최 : 서울경제신문사·건설부

후원 : 대한건축사협회·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사업협회·한국중소주택사업자협회